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풀뿌리 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10개소 돌파 560여개 가맹점 확보 점포 밀집 기준 20개→10개로 완화 보험료 지원·공동 브랜드 개발 총력

해남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황산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룡거리 골목형상점가'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해남읍의 고도리 골목형상점가와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와 '명지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확대 지정을 통해 해남군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로 늘어났으며, 소속된 상가만 560여개에 달하는 등 든든한 골목 상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해남군이 지난 2년간 상권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규제 문턱을 과감히 낮춘 결과다. 군은 지난 2024년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기존 '2천㎡ 이내 점포 20개 이상'이었던 점포 밀집 기준을 '10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해남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음식점. <해남군 제공>

이에 따라 우수영 상점가(69개)를 시작으로 대흥사(50개), 해남읍 원도심(85개), 팜끝마을(4

8개) 등 지역 내 주요 거점 상권들이 줄줄이 골목형상점가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경제의 꺾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황산면 상권 중심지인 공룡거리(32개)까지 합류하며 제도의 정착력을 증명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으로, 소비자는 상품권 할인 혜택을 통해 가게 부담을 덜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자격도 주어지며, 해남군은 단순한 구역 지정을 넘어 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

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온누리 가맹 점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상권별 특색을 살린 공동브랜드 개발,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상인들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골목상권이 해남 지역경제의 튼튼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항·백조호수공원, 생태 관광명소 부상

진도군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꽃단지가 일제히 화려한 꽃망울을 터트리며 늦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 주요 관광지인 방조제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꽃단지에 꽃양귀비와 코스모스, 안개초, 수레국화 등 다채로운 봄꽃이 만개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백조호수공원과 나리방조제 일원에는 코스모스와 금영화, 꽃양귀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보전방조제에서는 푸른 수레국화와 붉은 꽃양귀비가 색채의 향연을 펼치며, 군내농공단지와 진도항, 서방항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안개초

단지가 조성돼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대규모 단지 외에도 진도터널과 녹진교차로 등 소규모 자투리 공간에 자체 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 초화류를 심어 '365일 꽃피는 진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물론 쾌적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진도를 방문해 꽃향기 가득한 늦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조선의 팝 아트' 日서 개최

문체부 지원...11일부터 4개월간

오사가·도쿄한국문화원서 순회전

대한민국 전통 회화인 '민화'의 파격적인 현대성과 독창적 아름다움을 일본 현지에서 알리는 대규모 순회 전시가 막을 올린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민화뮤지엄, 강원영월 조선민화박물관, 주요오사·주일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민화, 조선의 팝 아트' 순회전이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인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8월8일까지 주요오사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8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쿄 주일한국문화원까지 총 4개월간 릴레이로 진행된다.

특히 국내 창작 민화 화단의 혁신을 주도해 온 '민화의 비상' 시리즈의 첫 해의 전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시는 조선 후기 대중의 소망과 해학을 그려낸 민화를 서구의 '팝 아트'에 빗대어 직관적으로 조망한다.

팝 아트적 특징이 돋보이는 책거리도 등 전통 민화 영인본 20점과 현대미술 기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현대민화 20점을 나란히 배치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다.

오슬기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은 "전 세계 민화에 주목하는 시기에 일본 대중에게 민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경영 안정 '숨통'

9천740명 확정 최대 70만원 지급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완도군이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9천740명으로 확정됐으며, 총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업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부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확정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교부받은 뒤, 지정 금융기관을 찾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 수령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발행 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제한 없이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 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목포문화연대 "혈세 낭비 인수위 생략하고 실무 직행"을

시장 당선인에 실용적 취임식 요구

보은 인사 차단·9천만원 예산 절감

목포 지역 사회에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될 시장 당선인이 의례적인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곧바로 시장 현안을 챙기는 '실무 직행형'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의 시장직 공백과 1년여간 이어진 선거 국면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새 당선인이 낭비성 절차를 건너내고 즉각적인 시장 장악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민선 1기 이후 전국 재·보궐선거 당선자 중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해 시장

을 이끈 사례는 175건에 달한다"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인수위 구성은 15명 이내로 자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는 당선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거 공신들을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나 '나눠 먹기식 자리 배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목포시가 편성한 인수위 운영 예산 약 9천67만원 중 65.3%인 5천917만원이 위원 및 직원 수당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한달 남짓 한 기간 동안 측근 위원들의 수당과 형식적 경비로 1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새 당선인은 측근 중심의 권위주의

적 인수위 대신, 목포시 각 실·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직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최소 규모의 '시장 현안 점검 TF'만 꾸려 당선인이 직접 실무를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율리 씨는 7월1일 열린 취임식 역시 문화예술회관을 동원하는 화려로운 관행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장 강당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실용적 취임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목포문화연대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을 생략하는 파격은 선거 공신들의 반대를 초월해 오직 시민의 이익과 시장 효율성만 바라보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새 시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즉각적인 실행력을 증명해 목포시장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월 임대료 1만원...함평 '세컨하우스' 입주자 모집

12일까지...학교·해보면 1세대씩

함평군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월 임대료 1만원에 집을 빌려주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만원 세컨하우스는 함평군 학교면과 해보면 지역에 각 1세대씩 총 2가구가

마련됐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 240만원과 월 임대료 1만원(2년분 일시납 조건)이라는 파격적인 비용으로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 전입을 앞둔 2인 이상 가구로, 지원자는 공고일 기준 전남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전남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국가 및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기존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상세 모집 요강과 신청 방법은 함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암군은 최근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저우시 행지중학교 학생 10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영암을 방문해 다채로운 교류 행사를 가졌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中 후저우시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 '성료'

행지중 학생 10명 2박3일 체류

가야금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영암군이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저우시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문화교류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미래세대 간 끈끈한 우정을 다졌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후저우시 행지중학교 학생 10명이 영암을 방문해 다채로운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초청은 국제 자매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방문단 학생들은 짝꿍인 영암여자고등학교 학생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영암여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학생들간 소통과 가야금 연주와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는 특별한 수업에 참여했다.

이밖에 전통 천연염색 체험장에서는 염색과 공예를 체험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며 남도의 해양경관과 관광자원도 둘러봤다.

영암군은 이번 초청 홈스테이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영암여고 학생들이 중국 후저우시를 직접 방문하는 답방 형식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가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우정을 쌓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국제 자매도시 간 미래세대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